



타국서 귀양사는 우리 문화재 빨리 돌아오길

한국문화재 탐방단, 에도성·도쿄국립박물관서 우리문화재 발자취 추적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와 ‘한국문화재 일본 탐방단’은 5월 12~14일 일본 내 우리 문화재 현황을 둘러보는 탐방을 진행했다. 선조의 숨결이 스며있는 문화재들은 약탈된 채 일본 박물관에 버젓이 전시돼 있었다. 탐방단은 이런 광경을 보며 의궤환수를 시작으로 일본 내 우리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탐방단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에도성이었다. 그곳에는 탐방단이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조선왕실의궤’가 보관돼 있다.

에도성은 일본 최고 정부기관으로 에도 막부 시절 쇼군의 거처로 사용되던 곳이다. 폐지된 후 천황의 교토 어소가 에도성으로 이전된 후 줄곧 일일이 거주하고 있는 ‘황궁’이다. 탐방단은 일본 황실에 의궤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에서 일본의 의궤를 약탈물·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불 수박에 없었다.

탐방단은 에도성 입장 후 의궤가 보관된 도서관 건물 앞에 도착했다. 도서관에 들어가 직접 의궤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도서관은 평상시에도 자유롭게 개방되지 않는 건물이었다.

비가 내리는 속에서 탐방단은 할 수 없이 도서관 앞에 모여 우산을 든 채 ‘한국문화재 일본 탐방단’이라는 명칭이 게시된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그러자 그 순간 에도성 경비대가 몰려오면서 탐방단을 제지했다.

탐방단이 어디동철해 하는 사이 경비대는 현수막에 적힌 글귀의 의미를 묻고, 기자단의 카메라를 검열하겠다고 촬영 장면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잠시 후에는 일본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탐방단의 활동을 제지했다. 일본 경찰은 탐방단에게 모

든 확인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마치 불순한 시위대처럼 취급하는 모습에 탐방단은 또 다른 설움을 느껴야 했다.

한참 동안의 설명과 실랑이 끝에 탐방단은 에도성을 나올 수 있었다. 에도성을 빠져나오는 탐방단의 마음 속에는 하루 빨리 조선왕실의궤를 반환받고, 나머지 문화재들도 되찾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도쿄 국립박물관 박제된 우리 문화재

탐방 이틀째인 13일, 탐방단은 도쿄국립박물관을 찾았다. 도쿄 우에노 공원 안에 위치한 이곳은 일본 최초의 박물관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전날 일본 경찰과 에도성 경비대로부터 설움을 당한 탐방단은 도쿄국립박물관을 찾은 심정이 비장했다. 도쿄국립박물관에는 ‘오쿠라 컬렉션’으로 알려진 ‘오쿠라 다케노스케’의 수집품들이 전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오쿠라 다케노스케’는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도굴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간 일본 기업가로,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는 111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보관돼 있다.

‘오쿠라 컬렉션’은 일본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유물이 망라된 ‘오쿠라 컬렉션’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발굴된 적이 없는 5~6세기 신라 금동투각 관모와 청동기 시대의 ‘견갑형 동기’ 등 국보급 유물도 포함돼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에는 ‘오쿠라 컬렉션’ 이외에도 삼국시대와 고려의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약탈해 간 금산사 향로도 볼 수 있었는데, 향로 하단부에는 ‘금산사 미륵전’이라는 글귀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다. 또한 시주자, 포함된 재료의 내용과 비율 등이 설명돼 있다. 당초 일본은 향로의 상하도 구분하지

못해 거꾸로 조립해 전시하다가 최근 이를 바로 잡았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사무처장 레문 스님은 “자신들의 문화재라면 상하도 구분하지 못해 거꾸로 전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결국 약탈한 문화재라는 증거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시대(6~7세기) 유물 ‘여래양협시입상’도 전시돼 있었다. ‘여래양협시입상’은 삼국시대의 주물 기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공동 대표 정년 스님(월경사 주지)은 “주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적 관심 필요한 문화유산 산재

탐방단은 서둘러 일본 국회로 향했다. 이날은 일본 참의원 문화회가 열리는 날로 중의원을 통과한 조선왕실의궤환수 비준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탐방단은 끝내 일본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의궤환수가 중의원 비준을 통과했지만 일본 참의원에서는 상임위원회조차 회부되지 못했던 것이다.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안건이 문화회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았다. 후사나 했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 헌법 제61조는 조약과 예산의 경우 중의원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궤환수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일본 국회 절차상 참의원 의결을 얻을 경우 의궤환수 절차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탐방단은 다시 영친왕 관저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친왕 관저는 일본 국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영친왕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로 고종의 일곱 번째 아들이다. 1907년 12월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 의해 일본에 인질로 잡혀갔다. 명목은 유학이었다. 영친왕은



레문 스님(좌)과 정년 스님(우)이 도쿄국립박물관의 우리 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탐방단이 의궤가 보관된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자 경비대와 일본 경찰이 제지하려고 나섰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평양올리사지석탑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귀국하길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63년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탐방단이 영친왕 관저를 찾았을 때는 출입문이 폐쇄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영친왕 관저는 아카사카에 위치한 그랜드 프린스호텔 내에 있었는데, 호텔이 최근 영업을 중단하면서 함께 문이 폐쇄됐다.

탐방단에 동참한 황사순(선왕이 죽은 뒤 인정한 황손) 이원 씨는 “의궤환수처럼 이 문제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

다. 영친왕의 아픔과 관저는 되살려야 할 우리시대 근대문화유산이다”라고 말했다.

탐방단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조선왕실의궤환수 기념 연회가 열리는 오쿠라 호텔이었다. 오쿠라 호텔 맞은편에는 미술관인 오쿠라 슈코칸이 자리하고 있다. 미술관 뒤에는 일본 실업가 오쿠라 가치로가 일제 강점기 때 경기도 이천에서 가져간 이천오층석탑과 평양올리사지석탑이 있다.

평양 올리사지 석탑은 고려 시대에 제작

돼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올리사에 있던 것이다. 이천오층석탑은 고려시대 이천시 관고동에 세워진 것을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옮긴 뒤 오쿠라가 1918년 일본으로 반출했다.

탐방에 함께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는 이날 오쿠라 슈코칸에 서한을 전달하고 석탑의 반환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오쿠라 슈코칸 측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기범 기자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범이 범의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辛卯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 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백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압축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구입문의: 일강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중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12,000원 | 사할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천우중



의궤 환수에 보내준 국민 성원에 감사

[인터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최명희 강릉시장, 이석래 평창군수



정념 스님



최명희 시장



이석래 군수

“의궤환수는 온 국민의 쾌거입니다. 일본에 흩어져 있는 1000여 점 이상의 우리 문화재들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중요합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공동대표인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월정사는 조선시대 ‘오대산 사고’의 수호총섭의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1922년 오대산 사고에 있던 실록을 일본이 강압적으로 약탈했고, 89년 만에 의궤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의궤를 400년 간 수호해왔던 월정사로서도 기쁜 일이지만 환수를 위해 일본에서 노력해 준 여러 인사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와 많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념 스님은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온

다면 월정사뿐만 아니라 150만 강원도민, 나아가 전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유산이 89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고, 오래전부터 조선왕실의궤를 지키기 위한 수호사찰이 강원도에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 지역문화발전과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명희 강릉시장과 이석래 평창군수는 이를 ‘문화분권’으로 설명하고 조선왕실의궤의 제자리 찾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명희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궤가 돌아옵니다. 강원도민들은 의궤가 2006년 환수된 실록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규장각에 보관되지 않을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또 “의궤가 강원도로 온다면 강릉뿐만 아니라 전 강원도민의 힘을 모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문화분권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최명희 시장은 문화재청이 의궤를 관리하면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많은 문화재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강원도로 돌아오면 강원도민의 사랑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월정사가 위치하고 있는 평창군의 이석래 군수도 문화분권을 강조하면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래 군수는 “중앙집권적 문화정책을 탈피한 문화분권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평창은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석래 군수는 또 “의궤가 돌아오면 적절한 보관을 위한 박물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주민 공감대도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끝이 아닌 새로운 문화주권의 시작”

조선의궤환수위, 한국 기념 연회... 지속적인 반환 협력다짐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해 협력해 온 한일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문화재 반환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월정사, 봉선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으로 구성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일본 동경의 오쿠라호텔에서 한국기념연회를 5월 13일 마련했다.

‘조선의 보물, 왕실의궤’ 한국 기념연회에는 의궤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카사이 아키라 의원 등 일본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국 관계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 환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환수위는 의궤환수를 위해 협력해 준 일본측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카사이 아키라 의원은 의궤 환수를 위해 한국을 2차례 이상 방문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베 토모코 의원과 우오즈미 유이치로 의원도 조선왕실의궤환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에 적극 협조했다.

이 밖에도 조선왕실의궤의 의미와 환수의 중요성을 보도해 전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KBS, MBC, 중앙일보 등 언론사 특파원과 와타나베 미쓰구 일조협회 회장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공동 대표



기념연회에서 의궤환수를 위해 노력한 한·일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문화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념 스님은 “그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다. 오대산 월정사는 수호총섭의 역할을 해왔다. 월정사 주지로서 기쁘다”라고 밝혔다. 월정사는 조선왕실의궤가 한국되면 국민적 축제의 한국행사라고 유제를 지낼 예정이다.

또 다른 공동대표 김원웅 전 국회의원도 “약탈 문화재는 원소유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국가적 통례다. 일본은 동북아 평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속적인 문화재 반환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시케 에이코 의원은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것이 끝이 아니다.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선왕실의궤환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동부서주했던 해문 스님은 연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한 모습이었다. 의궤환수는 이미 결정됐지만 함께 노력해 준 사람들을 위한 회향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스님의 역할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왕실의궤환수 사무처장 해문 스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더 많은 문화재들의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프랑스로... 평양으로...’

조선왕실의궤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2006년 9월 14일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동을 알렸다. 발족식 후 환수위는 일본 대사관에 ‘조선왕실의궤 반환요청서’를 전달했다. 2007년 8월에는 일본 공산당

에서 오기타 의원과 카사이 의원이 한국을 찾아 오대산 사고를 방문했다. 2008년 8월 경 환수위는 평양을 방문해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촉구하는 남북 공동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본에 제출했다. 의궤환수에 북한

과 협력하게 된 것이다. 2010년에는 18대 국회에서 정식으로 ‘일본 공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런 노력 끝에 2010년 8월 일본 간나오 토총리는 강제병합 100년 담화 발표에서 조선왕실의궤반환을 발표한다. 마침내 올해 4월 28일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도서 반환에 대한 비준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기범 기자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는 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뵈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사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제,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업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광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